



미주동중부한인회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 Mid-East USA

제 8 대 미주동중부한인회 연합회 서재홍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주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미주동중부한인회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각 지역 한인회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뢰와 인준을 바탕으로, 미주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이라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합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미주 동중부 한인사회의 공익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연합회를 만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이름만 있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한인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차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는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사안도 회칙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미주 동중부한인회 연합회는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조연이 있어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더 자랑스러운 미주 동중부한인회 연합회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년 1 월 16 일

제 8 대 미주동중부한인회 연합회 회장 서 정 일